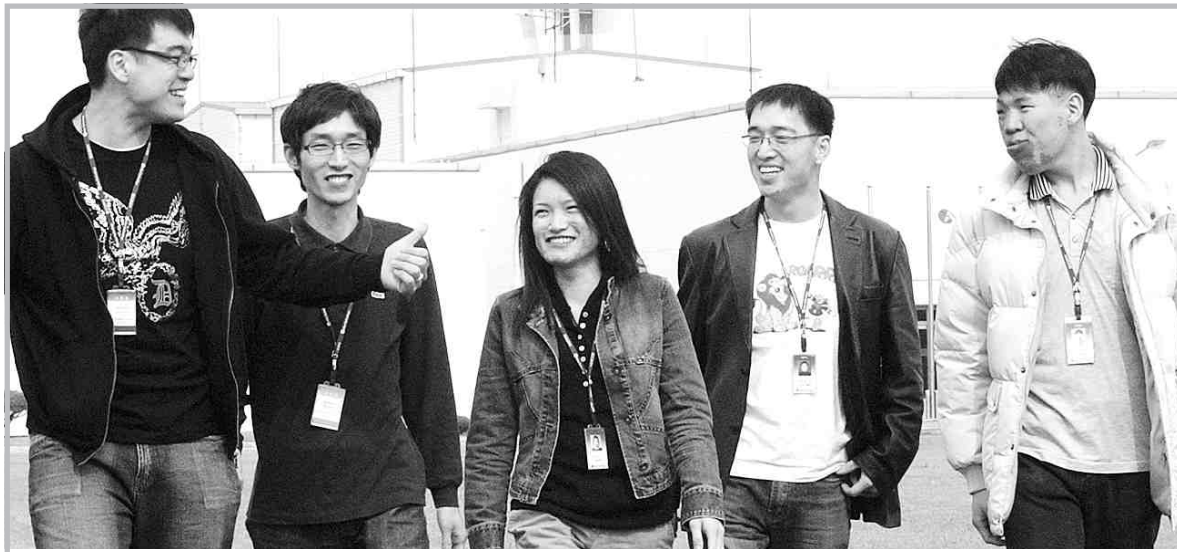


[ 사회 ]

내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일자리 늘립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맞춤 훈련'을 통해 올 초 엠코코리아에 입사한 백정인·박선재·최선아·문윤근·박성진(왼쪽부터)씨가 회사 내 잔디밭을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맞춤 훈련'으로 79명 자립 일터 "인생 180도 바뀌었어요"

"안정된 직장에서 인생의 2막이 장이 시작됐습니다." 올 초 광주시 북구 대촌동 반도체 생산업체인 엠코코리아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백정인(29·지체장애 6급)·박선재(31·지체장애 6급)·최선아(27·지체장애 4급)·문윤근(23·지체장애 3급)·박성진(26·안면장애 3급)씨는 요즘 하루 하루가 즐겁다.

젊은 180도 다르다"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살아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고방식을 완전 바꿨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스스로 설명할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어느 장애인과 다른 점. 그런 '열린 마음'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엠코코리아 한상길(39) 인사과장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어 앞으로도 센터를 통해 훈련을 마친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춤 훈련'이 시작된 2005년 이래 지금까지 센터를 거쳐 엠코코리아·삼성전자·전지환경·광성전자 등 광주·전남의 업체에 입사한 장애인들은 모두 79명이다. 18일에는 삼성전자 '맞춤 훈련' 희망자 34명이 입학식을 가졌다. 센터 재활상담팀 권희숙(여·43) 대리는 "맞춤 훈련"이란 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뽑아 소정의 교육을 먼저 시킨 뒤 취업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체와 장애인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1-320-700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애인고용공단, 기업 주문 받아 교육 "취업 걸림돌은 타인과 벽 쌓는 자신"

백씨 등은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 배진홍·이하 센터)에서 4개월 동안 엠코 측이 원하는 기계·정보 등 분야의 교육이 포함된 '맞춤 훈련'을 받고 입사했다. '맞춤 훈련'을 받고 입사한 40대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했다. 이들이 비장애인도 부러워할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 선천성 안면장애를 겪고 있는 박성진씨는 "스무 살 전과 후의 내

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힘'이었다.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수술한 백정인씨는 "장애인이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스로 타인과의 벽을 쌓아버리기 때문"이라며 "이 벽을 허물어야만 비장애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취업은 센터가 장애인의 취업을 엠코 측에 제안했고, 회사

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힘'이었다.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수술한 백정인씨는 "장애인이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스로 타인과의 벽을 쌓아버리기 때문"이라며 "이 벽을 허물어야만 비장애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취업은 센터가 장애인의 취업을 엠코 측에 제안했고, 회사

광주외고 설립 재공모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광주교육청은 18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해왔던 광주 보문고의 외국어고 전환이 무산됨에 따라 사립

외국어고 설립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은 ▲사립 외국어고 설립 제안서 접수(5월 8일) ▲제안서 검토·적격심사위원회 심사·설립 희망자 또는 학교법인 선정(5월 31일) 등이다. 설립 제안서에는 설치학과·학급

수·학생 수 등 학교규모에 관한 사항, 기숙사 등을 비롯한 교육환경 조성계획, 교장 임명에 관한 사항, 우수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보·신입생 모집대책, 특수목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 장학금 지급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부풀리고... 이중지원 받고...

농기계 보조금 샌다

농림부, 전남 영농법인 조사

전남도 내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이 '조사료용 농기계구입 보조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해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챙기는가 하면, 동일 농기계에 대해 법인과 개인 명의의 이중 용자를 받는 등 비리를 일삼다 적발됐다.

18일 농림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전남·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당사례를 상당수 적발해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전남지역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6년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135마력 급 2대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1억 1천52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실제 구입가격은 이보다 적은 110마력 급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보조금 차액 1천40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정기자 unipark@kwangju.co.kr

전남의 B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6년 8월 농기계구입비를 보조받아 트랙터를 구입했으나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1월 법인 대표명의로 135마력 급 트랙터 구입비 4천670만원을 용자받은 뒤 실제 트랙터는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C영농조합 등 5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 명의로 보조지원을 받은 농기계에 대해 회원들이 또다시 개인명의로 용자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설립 후 영업실적 1년 이상인 법인을 사입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1년 미만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축산단체와 영농조합법인은 보조지원 받은 농기계를 고장 등의 이유로 임의교환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농림부는 지원됐던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문책토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박희정기자 unipark@kwangju.co.kr

"5·18 함께해요"... 행사위 출범

내달 1~27일 기념행사

'5·18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18일 구전남도청에서 출범식 및 행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위는 이날 이홍길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강병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연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정수만 오월단체 대표 등 7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행사위는 또 '아이 러브 5·18' 슬로건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5·18 함께해요 6·10')을 받은 양철호 동산대 교수를 시상하고, 김신희 광주 YWCA 부장 등 행사위원 274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편 올해 5·18 주요 기념행사는 12개 부분 58개 행사로 구성됐으며, 구 전남도청과 국립 5·18민주묘지 등 시내 곳곳에서 오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5·18테마열차' 도심 달린다

광주지하철 운행

광주지하철이 5·18의 항쟁정신을 알리는 '5·18 테마열차'로 변신, 광주 도심을 달린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는 20일 오전 지하철 상무역에서 5·18 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 테마열차(4량) 발차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간다. 오는 7월20일까지 하루 10여 차례 운행되는 테마열차는 전동차 외부에 '검정고무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5·18 여행'이라는 만화작품으로 꾸며 기존 5·18의 항거적 이미지를 승화, 친근함을 부각시켰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April 19th (Wednesday)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Seoul,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초고속인터넷, 국내 첫 지리산 등정

KT, 성삼재서 개통식

초고속 인터넷이 국내 최초로 해발 1천m 지리산까지 올라갔다.

KT 전남본부는 19일 오전 10시30분 지리산 성삼재(해발 1천90m) 휴게소에서 '광인터넷 개통식'을 갖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간 2억원을 들여 노고단 정상에 위치한 KT중계소~노고단 대피소~성삼재 휴게소간 4.7km 구간을 광케이블로 연결한 것이다. 그동안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와 성삼재 휴게소는 1천m 이상 지역에 위치한 탓에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가 없었다. 인공 위성을 이용해 다운로드 속도 1Mbps의 '저속'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유선망을 이용한 인터넷이 가능해져 10Mbps수준의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KT 전남본부 측 설명이다. 김영권 KT 전남본부장은 "광인터넷을 하늘 아래 높은 산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19 부상' 유상석씨 4·19 하루 앞두고 숨져

4·19 집회 도중 서울 성북경찰서

가 총상을 입었던 유상석(향년 76세)씨가 4·19혁명 기념일을 이틀 앞둔 17일 입원 중이던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숨을 거두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4·19 집회 도중 서울 성북경찰서 근처에서 왼팔에 총탄을 맞고 쓰러진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유씨는 9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이듬해 1월 퇴원했지만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팔을 쓰지 못했고 증세가 악화될 때마다 다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유씨는 법무부·산업은행 등에서 졸업하고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4월19일에 맞춰 서울로 올라왔다가 번을 당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with details on enrollment, exam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Revolutionary Opportunity for Battery Cost Reduction) featuring Battery Doctor produc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Revolutionary Fuel Cost Savings in Heating) for Dymaco products.